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

**2022년 4월 28일(목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27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22. 4. 27(수) | 담당부서 | 수소경제정책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이옥헌 과장(044-203-3950) | 담 당 자 | 김만식 사무관(044-203-3953) |

#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

## -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(IPHE) 총회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는 4월 26일(화)~27(수) 양일 간 개최된 **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(IPHE) 총회**에 참석하였음

* **IPHE** :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

○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('21.11월)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**수소경제 정책**과 **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** 등을 공유하였으며, 코로나-19 상황을 고려하여 **화상회의 형식**으로 진행되었음

**<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(IPHE) 개요 >**

○ 목적 : 친환경·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 (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국제기구 필요성 부각)

* '03년 美 부시 대통령의 'Hydrogen Fuel Initiative' 선언에 따라 '03. 11 출범

○ 주요활동 :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·실증·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, 정책개발·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

○ 회원국 : 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, 독일, 프랑스, 영국, 호주, UAE, 스위스 등 23개국

□ 각국의 최근 수소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2021년 **11월** 발표한 「**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**」의 내용을 소개하며, 한국의 **수소 생산-운송·저장-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**을 설명하였음

○ 또한 금년 2월 시행된 **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***을 소개하고, **수소 관련 규제 샌드박스****를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하였음

* 수소제조설비, 연료전지 등에 대한 제조허가·등록제도 및 안전검사 실시

** 수소항공모빌리티, 수소 튜브트레일러 저가임대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 실시

○ 아울러, 최근 착수한 **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및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**과 함께 **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**를 발표하며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하였음

□ 한편, 미국, 중국, 일본, 영국 등 주요국들은 **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**을 발표하였음

○ **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**를 통해 **수소분야 약 95억 달러(약 11.8조원) 예산을 확보**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, **중국은** 최근 발표한 **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** 내용을 설명하였음

- 또한, **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실증을 완료**했음을 밝혔고, **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두배로**(5GW→10GW)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음

○ 프랑스는 **'프랑스 2030*'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(2.5조원)의 추가 투자계획을** 발표하였으며, **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**을 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였음

* 프랑스 산업 부문 혁신 및 육성을 위한 투자 로드맵

**< IPHE에서 소개된 주요국의 수소경제 추진 현황 >**

○ 미국 : '21.11월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(Bipartisan Infrastructure Law, BIL) 통과로 수소분야 약 95억달러* 투자 예산 확보

* 청정수소 허브 구축 80억달러, 수전해 프로그램 10억달러, 수소 제조 0.5억달러 등

○ 중국 : '22.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'35년까지 모든 산업 영역에 수소 활용을 목표로 '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' 발표

○ 일본 :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해상운송 실증 완료(호주→일본), 경제산업성 주관 "수소정책위원회" 출범

○ 영국 : '22.4월 "에너지안보전략" 발표, 에너지 자립을 위해 '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를 5GW에서 10GW로 확대

○ 독일 : 신정부 출범에 맞춰 수소 정책 강화, 수전해 용량 목표 확대(5GW→10GW), 독일 이온(E.on)은 호주 포테스큐(Fortescue)와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협약 체결

○ 프랑스 : 프랑스 2030의 일환인 "그린수소 선도국으로 도약"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분야 기존 72억 유로(9.6조원)에 19억 유로(2.5조원) 예산 추가

○ UAE : 저탄소 수소 시장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"수소 리더십 로드맵" 발표, 수소 생산·수출을 통해 저탄소 수소 시장 점유율 25% 이상 목표

□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“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**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**하고 있다”고 밝히면서,

○ “에너지 전환 시대의 **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**에 뒤처지지 않도록 **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**을 위해 노력할 것”임을 언급함
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김만식 사무관(☎ 044-203-395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